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1. 문학의 빛깔

- (1) 슬픔이 기쁨에게 (58문제)-----1쪽
- (2) 달밤 (59문제)-----29쪽
- (3) 파수꾼 (58문제)-----74쪽
- (4) 통곡할 만한 자리 (30문제)-----120쪽

2. 책 속에 길이 있다

- (1) 삶을 바꾼 만남 (40문제)-----142쪽
- (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19문제)-----167쪽

3. 생각하고 표현하고

- (1) 글쓰기를 잘하려면 (33문제)-----179쪽
- (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30문제)-----203쪽

4. 소통의 힘

- (1) 이유 있는 여유 (30문제)-----222쪽
- (2) 매체로 보는 세상 (18문제)-----243쪽

5. 바른 언어생활

- (1) 음운 변동 (61문제)-----255쪽
- 한글 맞춤법 (65문제)-----274쪽

- ◆빠른 전체 정답-----294쪽
- ◆해설-----2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과잉 연결 시대’ 명리 문력

■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논리적, 설득적, 예시적
제재	과잉 연결 시대
주제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특징	①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임. ②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했을 만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임. ③ 의문 형식으로 글을 끝마침으로써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함.

■ 쓰기 맥락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목적	지나치게 많은 연결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워서 주장하는 글을 쓰려함.
독자	고등학생
매체	학교 누리집 (인터넷 매체)

■ 글의 구성

서론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실
본론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결론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의 필요성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사례 제시	· 예상 독자들이 경험했을만한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함. ·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임.
자료 활용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획득함.

■ 이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

먼저	병렬적으로 제시될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임을 안내함.
다음으로	대등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것임을 안내함.
마지막으로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마지막임을 안내함.

■ 이 글의 구조

핵심 주장 :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세부 주장 1	세부 주장 2	세부 주장 3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사진이나 개인 기록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도록 한다.
근거	근거	근거
개인 정보가 흘러 나가면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거 자료	근거 자료	근거 자료
· 구체적 통계 자료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의 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 자료)	· 실제로 누리 소통망에서 퍼졌던 괴담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아파트 이웃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각자의 휴대 전화만 들여다 봄.)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 정리 목록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설명적, 예시적
제재	초연결 사회
주제	초연결 사회의 특징과 올바른 이용
특징	① 예상 독자(초등학생)를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함.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함. ③ 담화 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함.

3-(1)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론편]

■ 쓰기 맥락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목적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자 함.
독자	초등학생
매체	초등학교 과학 동아리 소식지

■ 글의 구성

처음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중간	초연결 사회의 특징
끝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질문하기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함.
사례 제시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요약하기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줌.

■ 이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

먼저	병렬적으로 제시될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임을 안내함.
또	대등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것임을 안내함.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될 것임을 안내함.
지금까지, 이처럼	앞에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줄 것임을 안내함.
하지만	앞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안내함.

■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고쳐 쓸 부분

고쳐 쓸 부분	고려한 쓰기 맥락	고쳐 쓰기 방향
3문단 '감지 장치와 통신 회로를 ~ 주고받을 수 있는'	독자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쉬운 표현으로 고침.
5문단 '범죄로부터 ~ 따라가서도 안 돼요.'	주제	주제에 어긋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함.

그라신 씨의 모습

1) 윤서가 <감지 장치와 통신 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쳐 쓴 까닭을 말해 보자.

→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한 설명이 예상 독자인 초등학교생의 지식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2) 윤서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부분을 삭제한 까닭을 말해 보자.

→ 주제인 '초연결 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없어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3) 윤서가 쓴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자.

- 처음: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 중간: 초연결 사회의 특징
 - 초연결 사회의 장점
 - 초연결 사회의 단점
- 끝: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4)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문단에 넣을 수 있는 보조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나 그래프, 개인 정보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를 다룬 뉴스 동영상 등

5) 선유가 쓴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자.

핵심 주장: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

세부 주장 1	세부 주장 2	세부 주장 3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사진이나 개인 기록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근거	근거	근거
개인 정보가 흘러 나가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당 기억 더하기

■ 쓰기 맥락

쓰기 맥락이란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이 글을 쓰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요소를 의미한다.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통해 독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등의 목적이 있음. ·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과 내용, 표현 방법 등이 달라지게 됨.
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독자의 연령, 성별,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주제와 예상 독자, 글쓴이와 예상 독자의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함. ·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의 내용, 표현 방식, 어휘 등이 달라짐.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표현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매체. · 매체에 따라 글쓴이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달라짐. · 매체에 따라 글쓴이와 독자의 의사소통 구조가 달라짐.(일방향적인 구조 / 양방향적 구조)

■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에 대한 끊임 없는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귀적, 상호 보완적, 목표 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목적, 주제를 설정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사, 수준 등을 분석 · 작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작문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구상
내용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수집 ·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마련 · 자료의 적절성과 신뢰도를 판단하여 선별 · 작문 계획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수정, 보완 · 생성된 내용을 검토하여 작문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한 내용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선정, 배치 ·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 · 글의 형식적 관습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한 내용을 조직 및 전개 계획에 따라 초고로 작성 · 작문 맥락과 내용을 고려하여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 · 활용하는 매체를 고려하여 그림, 도표, 동영상 등의 보조 자료 적극 활용 · 표현 과정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글의 내용, 표현, 조직, 전개 방법 조정
고쳐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 추가, 삭제, 재배열의 원칙에 따라 고쳐쓰기 ·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 글 점검

3-(1)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론편]

■ 고쳐쓰기의 과정

글 수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 해 보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이 적절한가? •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가?
문단 수준	문단 내의 통일성과 장과 문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점검해 보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는가? •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문장 수준	각 문장이 어법에 맞 는지, 뜻이 잘 통하는 지를 점검해 보는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임, 시간, 사동과 피동, 호응 등의 문법적 표현이 올바른가? • 문장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가? • 애매하거나 모호한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단어 수준	각 문장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가 적절한지 점검해 보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가? •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불필요하거나 빠뜨린 단어는 없는가?

■ 설득하는 글의 판단 기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검토 • 자료의 출처와 출처의 신뢰성 확인, 작성된 시기, 인용 방법의 적절성 확인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이나 의견, 근거 등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검토 • 주장이나 의견, 근거 등의 논리적인 입증 절차 확인,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
공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이나 의견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검토 • 주장이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설득하는 글쓰기의 절차

주장 정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장으로 내세워야 함. • 주장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함.
↓	
논거 마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함. • 논증 방법 결정: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변증법 등
↓	
내용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에 맞게 내용을 조직함. • 독자의 관심사와 수준,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함. • 구성 방식 결정: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할 대상의 특성이나 글의 유형을 고려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 논리적 설득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감성적인 설득으로 공감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음.

덕이고등학교 (경기)

1. <자료>는 초등학교를 독자로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자료>의 ㉠~㉣을 점검한 것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

• 주제 : 초연결 사회의 특징-----㉠

처음 :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1.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편리함

2. 초연결 사회의 개념-----㉡

중간 : 초연결 사회의 특징

중간 1 - 초연결 사회의 장점-----㉢

1.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극복

중간 2 - 초연결 사회의 단점

1.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2. 가족, 친구와의 소통 차단

3. 초연결 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끝 :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지혜롭게 미래의 기술을 누릴 수 있음-----㉤

<보기>

㉠ :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드러나도록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

㉡ : 초연결사회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 초연결사회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첨가해야겠어.

㉣ :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최근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를 근거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제시해야겠어.

㉤ : 세계강대국들이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을 집중시키는 반면 여전히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밀려있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 담당자의 안일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체해야겠어.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반응한다. 곧이어 부모님께서 용돈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즉시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손쉽게 해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을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과잉 연결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를 보면 2004년 77,099건이던 인터넷 관련 범죄가 2013년 155,366건으로 10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3,333건이던 개인 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2015년에는 152,151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비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우선 주민 등록 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보가 마구 흘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잉 연결 사회는 우리를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 '낮선 사람이 만든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몇 년 전 누리소통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괴담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세계를 떠돌아 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그에 따른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잉 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나는 얼마 전 아파트 이웃들과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모두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각자의 휴대 전화를 들여다볼 뿐 침묵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순서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지만 누가 어디 사는지, 어떤 이웃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에 빠져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잃어 가는 모습이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그러면 비로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외롭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는 것

은 어렵다. 따라서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덕이고등학교 (경기)

2.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통계 자료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 의문 형식으로 글을 맺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
- ㉢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했을 직한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 과잉연결시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 핵심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주장이 있고 각각의 세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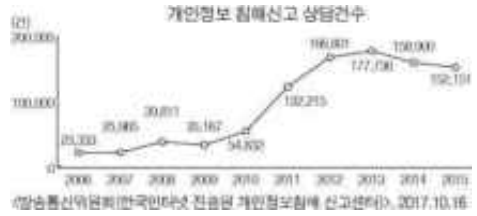
3. 뒷글을 쓰기 위해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의 글쓰기 계획을 고려하여 <보기> 중 삭제해야 할 자료를 고른 것은?

• 글쓰기 계획
 주제 :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는 내용으로 써야겠어.
 목적 : 지나치게 많은 연결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워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어.
 독자 : 글의 시작 부분에 고등학생이 경험했음 직한 사례를 들어서 공감을 이끌어 내야겠어. 또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해야지.
 매체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겠어.

<보기>

자료1 : 텔레비전 뉴스
 최근 연쇄살인 사건과 탈옥 등 출처 불명의 괴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이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가 교도소를 탈옥했고, 경남 통영과 울산에서도 연쇄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짓 소문이 인터넷에 확산돼 경찰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경찰은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괴소문의 유포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kbs 뉴스>, 2017. 08. 12-

자료 2. 개인정보 침해 건수



자료 3. 텔레비전 뉴스

집 안 곳곳에 달린 센서가 위기를 감지하여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 요청을 해 줍니다.
 - <이비에스(EBS)>, 2014. 10. 29. -

자료 4. 책

사생활 침해는 인터넷 시대에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골칫거리라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함께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했던 물리적 제한 또한 사라졌다.
 - 윌리엄 데이비도우, 「과잉 연결 시대」 -

자료 5 : 신문 사설

모든 것이 초연결 되고 초지능화된 사회인 '4차 혁명시대'가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데이터의 민주화'이다. 데이터의 민주화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관련법 제도 미비, 기업의 데이터 이기주의, 시민단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 등으로 데이터 민주화가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 <아주 경제>, 2017. 05. 30. -

- ㉠ 자료 1, 자료 2
- ㉡ 자료 1, 자료 4
- ㉢ 자료 2, 자료 5
- ㉣ 자료 3, 자료 4
- ㉤ 자료 3, 자료 5

눈촌고등학교 (서울)

4. 다음 중 글쓰기의 일반적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계획하기-내용생성하기-내용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
- ㉡ 계획하기-내용조직하기-내용생성하기-고쳐쓰기-표현하기
- ㉢ 내용생성하기-계획하기-내용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
- ㉣ 계획하기-표현하기-내용조직하기-내용생성하기-고쳐쓰기
- ㉤ 표현하기-계획하기-내용생성하기-고쳐쓰기-내용조직하기

둔촌고등학교 (서울)

5. 아래의 (가)를 고려하여 (나)를 작성하였다고 할 때 (나)를 점검, 조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작문의 상황
초등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윤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동아리 소식지에 실을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윤서의 개요
주제 : 초연결 사회의 특징
[처음]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1.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편리함
① 2. 초연결 사회의 사례
[중간] 초연결 사회의 특징
① 중간 1 - 초연결 사회의 장점
1.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극복
중간 2 - 초연결 사회의 단점
② 1.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2. 가족, 친구와의 소통 차단
③ 3. 초연결 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끝]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지혜롭게 미래의 기술을 누릴 수 있음

- ①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들을 위해 ①에서 '초연결 사회의 개념'을 설명해야겠군.
- ② ②의 하위 항목으로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완해야겠군.
- ③ ③의 근거자료로 사이버 범죄 발생과 검거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겠군.
- ④ ④은 초연결사회의 단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 1'로 옮기는 것이 좋겠군.
- ⑤ 개요를 모두 작성한 후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겠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윤서의 글쓰기 계획
주제 :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글을 써야지.
목적 :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지.
독자 :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니까 되도록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야지. 그리고 시작 부분에는 초등학생이 흥미로워할 만한 사례를 넣어야지.
매체 : 소식지라는 인쇄 매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지.

(나) 윤서의 초고

여러분은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평소 심장병을 앓던 사람이 심장 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가 가까운 병원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주어, 곧바로 응급 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선 통신망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 오늘날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감지 장치와 통신 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은 인터넷,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음성으로 길을 알려 주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초연결 사회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초연결 사회의 단점도 있어요. 무선 통신망으로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나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①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내 앞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처럼 초연결 사회의 단점으로는 개인 정보가 흘러 나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가족, 친구와 소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초연결 사회가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6.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㉓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특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 ㉔ 과거 사회와 '초연결 사회'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 ㉕ 독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 ㉖ 담화표지(접속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7. **윤서는 고쳐 쓰기 과정에서 ㉑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글의 분량이 글쓰기 계획보다 많아져 삭제하였다.
- ㉒ 주제에 어긋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하였다.
- ㉓ 예상독자인 초등학생의 지식수준에서 벗어나 삭제하였다.
- ㉔ 믿음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신뢰성이 없어 삭제하였다.
- ㉕ 소식지라는 인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삭제하였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자료 중 **윤서의 글에 넣기 적절하지 않은 보조자료의 기호와 그 이유를 쓰시오.**

<보기>

(가) 손목 시계가 병원에 연락하여 목숨을 구하게 된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뉴스 동영상 자료

(나) 인터넷으로 멀리 떨어진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는 사진 자료

(다) 연도별 인터넷 범죄의 발생 건수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유의 글쓰기 계획
 주제 :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는 내용으로 써야겠어.
 목적 : 지나치게 많은 연결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워서 글을 써야겠어.
 독자 : 글의 시작 부분에 고등학생이 경험했음직한 사례를 들어서 공감을 이끌어 내야겠어. 또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해야지.
 매체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겠어.

(나) 선유의 초고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반응한다. 곧이어 부모님께서 용돈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즉시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손쉽게 해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을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과잉 연결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범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를 보면 2004년 77,099건이던 인터넷 관련 범죄가 2013년 155,366건으로 10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3,333건이던 개인 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2015년에는 152,151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비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우선 주민 등록 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보가 마구 흘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잉 연결 사회는 우리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몇 년 전 누리소통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괴담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그에 따른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잉 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필력

■ 핵심 정리

갈래	반대 신문식 토론 담화
성격	논리적, 설득적
제재	투표 연령
논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특징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 토론 담화임. ②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함.

■ 토론하기 (반대 신문식 토론)

논제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① 찬성1 입론	문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임. ·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	
	해결 방안	투표 연령을 낮춤.	·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음.
	이익 / 효과	·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됨. ·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	
② 반대2 반대신문	·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율’에 대한 용어 사용의 오류를 지적함. · 찬성 측이 주장한 인권 침해의 의미에 대해 질문함.		
③ 반대1 입론	문제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투표에 제한을 두는 것임. · 청소년 선거권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임.	
	해결 방안	·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전체의 인권 침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 정치나 정책에 관한 관심은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 청소년 관련 정책은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함.	
	이익 / 효과	· 청소년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을 막아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음.	
④ 찬성1 반대 신문	· 반대 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의 허점을 지적함. · 반대1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함.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시)		
⑤ 찬성2 입론	세부 주장①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세부 주장②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음.	

3-(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이론편]

⑥ 반대1 반대 신문	· 찬성2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세계적 추세라 해서 꼭 따라야 하는가?) · 찬성 측의 근거를 반박하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⑦ 반대2 입론	세부 주장①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변화임.	
	세부 주장②	투표 연령은 각국의 문화, 정서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	
⑧ 찬성2 반대 신문	반대2의 발언에 대한 근거 요구		
	· 제시한 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하버드 의대 맥린 병원 연구 결과-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성인보다 부족하다.'	반대 측	타당함.
찬성 측		타당하지 않음.	
⑨ 반대1 반론	*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함.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자는 앞서 제기된 많은 논쟁점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려내어 최후의 진술을 함.		
⑩ 찬성1 반론			
⑪ 반대2 반론			
⑫ 찬성2 반론			

■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징

- 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토론자 각 개인은 입론, 교차 조사, 반박의 세 번의 발언 기회를 가짐.
- ② 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특징이 있음.
- ③ 토론 중 속의 시간을 갖기도 함.

토론 지식 이해하기

■ 토론이란

토론이란 특정한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자기 측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이다.

■ 토론의 유형

교전식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2명이 한 팀이 되어 입론과 반론의 과정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전통적 토론 방식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조사식 토론, CEDA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교전식 토론에 반대 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 방식
적파식 토론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하여 논파하는 방식.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면 심판이 언제든 토론을 중단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음.

■ 논제의 종류

사실 논제	어떤 사실이 참이나 거짓이나를 다루는 논제. 역사적 사실, 법정 재판, 인사 청문회 토론 등이 포함됨. 예)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가치 논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 예)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정책 논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음. 예)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 논거

- 개념: 논제가 옳바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
- 요건: 논거는 논제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거를 제시하면 타당성이 부족하여 논제가 옳바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 종류

사실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논거 · 통계적인 수치나 역사적 자료, 관찰 내용이나 실험 결과, 보편적인 신념이나 사실 등 · 사실 논거가 많을수록 글이나 말의 신뢰성이 높아짐.
소견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거 · 소견 논거는 권위의 정도에 따라 논거의 신뢰성이 달라지므로 권위가 높은 의견을 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함.

■ 반대 신문식 토론

- 개념: 어떤 논제에 대해 찬반 양측이 상대방에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함으로써 토론의 승부를 가리는 방식
- 절차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교차 조사)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교차 조사)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교차 조사)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교차 조사)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

■ 쟁점

쟁점이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다. 다양한 쟁점 중에서 특히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쟁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시된 쟁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논제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실행 가능하다.	제시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찬성 측이 제시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제시된 정책의 도입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다.	제시된 정책이 도입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

■ 토론 용어

- 쟁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 논증 구성 요소: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근거가 타당한 이유
- 입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 반대 신문식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딱딱해질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 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2 :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찬성 1 :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전고등학교 (서울)

1. 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 '찬성 1'은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 '반대 2'는 반대 신문을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 '찬성 1'은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 '반대 2'는 전문가의 의견을 언급하며 '찬성 1'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서울)

2. 이 토론에서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 두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 ㉢ 토론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 ㉣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 ㉤ 토론자의 발언에서 불충분한 점을 질문하여 보강하게 하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서울)

3. 다음 중 ㉦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논제는?

- ㉠ 청소년에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 ㉡ 청소년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이성 교제는 바람직하다.
- ㉣ 청소년 시기에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진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참고하여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 논제 : 토론의 주제
- 논증 : 주장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
- 논지 :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 반대 신문 : 상대측 입론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자료나 논리 전개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여 질문하는 것
- 반론 :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
- 입론 :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 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

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 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확하겠습니다.

반대 2 :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찬성 1 :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회자 : 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 찬성 측이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배워 나가는 시기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는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투표 연령에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는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 1 :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찬성 1 :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 1 :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5. 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찬성 1'은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찬성 1'은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 ㉢ '반대 1'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 '반대 1'은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반대 2'는 투표 연령을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덕이고등학교 (경기)

6.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로 올바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토론이 열린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 ㉡.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적절히 통제한다.
 - ㉢.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한다.
 - ㉣.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 ㉤. 상대측의 발언을 경청하고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찾아 논박한다.

- ㉠ ㉡, ㉢, ㉣
- ㉡ ㉢, ㉣, ㉤
- ㉢ ㉣, ㉤, ㉥
-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중략>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 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 찬성 측이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배워 나가는 시기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는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 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략>

사회자 :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반대 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중략>

사회자 :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진고등학교 (부산)

7. 위 토론에서 밑줄 친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어떤 현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루면서, 명제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논제이다.
- ㉣ 어떤 사안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이다.
- ㉤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부산진고등학교 (부산)

8. '찬성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 논제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 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 논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진고등학교 (부산)

9. ㉡와 같은 토론의 단계에서 토론자의 역할이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질문자는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 ㉡ 질문자는 발언 내용 속에서 숨어 있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야 한다.
- ㉢ 질문자는 상대측의 언급한 자료의 수치, 사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 ㉣ 답변자는 상세하고 길게 답변을 하여 질문자가 새로운 지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 답변자는 질문의 내용을 경청하여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게 답변을 해야 한다.

부산진고등학교 (부산)

10.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부터이다.

‘이유 있는 여유’ 정리 요약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수필
성격	경험적, 신변잡기적, 사색적, 교훈적
제재	여유
주제	여유의 의미와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의 가치
특징	① 작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밝히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② ‘여유’라는 개념에 대해 사색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시함.

■ 글의 구성

처음	여유와 관련된 ‘나’의 경험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다며 거절함.)
중간	두 가지 종류의 여유와 그 특징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를 중심으로 서술함.)
끝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의 중요성 (여유가 갖는 의미와 여유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함.)

■ 두 가지 종류의 여유

첫 번째 종류의 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 여유의 기준,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임. 상황에 따라 달라짐.
두 번째 종류의 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음.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음.

■ 여유의 근원

상황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여유는 내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규정됨.
마음	표정, 태도, 행동 등에서 여유가 드러날 수 있으며,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음.

■ 글쓴이가 생각하는 여유의 가치

-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 이러한 가치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

■ 이 글에 주로 사용된 내용 전개 방법

분류	여유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
대조	두 가지 종류의 여유가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보여 줌.
예시	‘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상적인 사건들을 예로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이해를 도움.

“통일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쓴 윤영진 영민 영덕

■ 핵심 정리

갈래	칼럼
성격	설득적, 권고적
제재	통일
주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특징	①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조언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예상 독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 ③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대조적 관점을 다양한 어휘들을 통해 제시함.

■ 글의 구성

서론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밝힘.
본론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함.
결론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함.

■ 쓰기 과정에 따른 글쓴이의 생각

글을 쓰기 전	① 주제 정하기
	통일에 대한 이야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 등
	② 예상 독자 떠올리기
글을 쓰기 전	김 군 등 청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등
	③ 주제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하기
글을 쓰는 중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물신주의가 점점 더 퍼지고 있으며,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①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떠올리며 글 쓰기
	· 먹고살기 어려운데, 통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험 ·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는 사람들을 본 경험 등
글을 쓰는 중	② 독자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활용하기
	· 독자에게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편지 형식으로 글을 씀. · 독자의 상황을 헤아리고 공감함. ·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독자와의 정서적인 거리를 좁힘.
글을 쓴 후	독자의 반응을 살펴보며 소통하기
	·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봄. · 독자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유지함.

■ 유추에 의한 내용 전개

사람
육체, 정신으로 구성됨.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

국가와 민족
개인들이 모여 형성됨.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님.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

경제적인 관점	정치나 경제, 육체, 돈, 물질적, 비용
정신적인 관점	정신, 역사의식, 공동체 의식, 근본, 정신적 가치,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

“**인유** **인유** **인유**” **구절** **분석**

1)

교과서 161쪽 4~6행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닌
란생각이 들었다.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았다.**

→ 여유는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글쓴이가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를 인식하고 나서 ‘여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경험
이 지니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깊은 생각으로 연결하는 글쓴이의 자세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2)

교과서 161쪽 13~14행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는 의지나 마음가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유
의 기준이나 척도가 객관적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이 얼마나 넉넉한가에 따라 생기는 여유이므로, 이후 제시하는 두 번째 여유인 마음의 여유에 비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과서 162쪽 6~9행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

→ 두 번째 종류의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여유로, 객관적인 척도가 아닌 주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표정이나 태도, 행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다.

4)

교과서 163쪽 7~9행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뒤틀림을 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 여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바쁘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스스로 찾아 누리는 일을 경쟁에서 퇴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5)

교과서 164쪽 3~4행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여유를 적극적으로 낸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데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일이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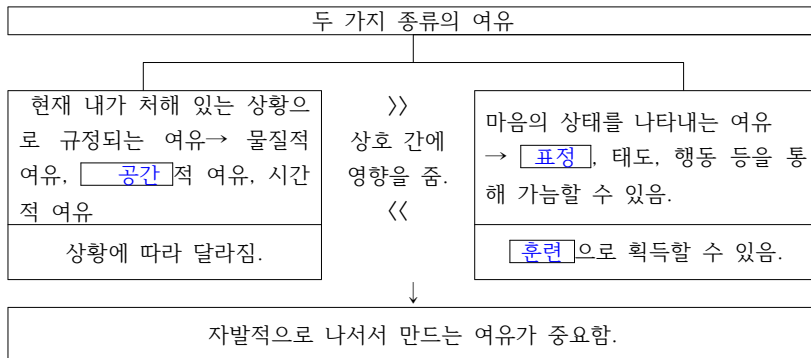
6)

교과서 164쪽 5~7행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자기답게 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사는 자신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침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 모두 스스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이유 있는 여유**” 만드는 방법 모음

1) 글의 내용 정리하기



2) 글쓴이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러한 여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태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 • 여유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기 위한 의지와 간절함을 갖는 태도 	길을 걸을 때 휴대 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가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 등

↓

여유를 만들 수 있음.

3) 글쓴이는 여유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여유를 만드는 일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모두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4) 글쓴이가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김 군에게>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지 글쓴이의 생각과 쓰기 과정을 추측해 보자.

ㄱ. 어떤 이야기를 할까?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 통일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 등

ㄴ. 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 김 군 등 청년들. 취업 준비생.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함. 통일을 정치·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함.

ㄷ.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요즘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지 떠올려 볼까?

→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물신주의가 점점 더 퍼지고 있으며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ㄹ. 그럼,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

-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험
-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는 사람들을 본 경험
- 손자, 손녀를 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경험
- 2013년 봄, 베를린에서 머물 때 독일 친구와 대화한 경험

ㅁ. 독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려면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일까?

- 독자에게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평범한 서술 방식보다는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어.
- 나의 의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독자의 상황을 헤아리고 공감한다면 정서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야.

“이유 있는 여유” 읽기 질문 모음

[교과서 161쪽]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

[교과서 162쪽]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여유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여유는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서 163쪽]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이다. 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후자는 훈련으로 획득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 164쪽] 이 글의 제목인 ‘이유 있는 여유’의 뜻은 무엇일까?

여유는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 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므로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유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당 파악 이해하기

■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을 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즉 읽기는 글의 고정적 의미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의 사고 과정이다.

■ 읽기의 특징

의미 구성 행위	읽기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글을 읽게 됨.
문제 해결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기가 활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된 책을 읽는 경우, 가전제품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읽기의 과정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왜 이 글을 읽는가?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썼을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글을 읽게 됨.
의사소통 행위	독자가 글쓴이 혹은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화하며 소통을 하기도 함.

■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독자의 상황	읽기를 하는 시간과 장소, 글과 관련된 독자의 경험이나 지식, 읽기 목적 등 독자의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 전반을 의미함.
사회·문화적 맥락	글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문화적 상황 전반을 의미함.

■ 다양한 읽기 방법

사실적 읽기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읽기로, 글 중심의 읽기
추론적 읽기	글에서 생략된 내용과 글에 암시되어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읽기
비판적 읽기	글의 내용, 형식, 표현, 글쓴이의 생각 등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읽기
감상적 읽기	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읽기
창의적 읽기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읽기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읽기나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등 고차원적인 읽기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

쓰기는 글쓴이가 독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이며,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한 의미를 담은 한 편의 글을 쓰게 된다. 이렇게 글쓴이가 구성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 쓰기의 특징

- 글쓰이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씀.
- 글쓰이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글을 씀.
- 쓰기는 글을 읽게 될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임.
- 글쓰이가 주어진 쓰기 과제를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임.

■ 쓰기의 과정

내용의 생성	창조적인 사고 활동을 거쳐 글의 내용을 생성함.
내용의 조직	일정한 원리를 거쳐 내용을 구성함. 즉 글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되 글의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배열되도록 함.
내용의 표현	생성하고 조직한 정보를 완결된 언어의 모습으로 표현함.

■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쓰기는 일정하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행위이므로, 쓰기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글쓰이의 의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
- 각각의 상황 맥락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글을 쓰는 전 과정에서 상황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글쓰이는 글을 쓰면서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 지식, 세계관 등을 글에 반영함.

■ 쓰기를 할 때 고려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가 속한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고려해야 함. • 공동체의 규범, 가치와 자신의 글쓰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함. 	→	<p>자신의 글이 개인 및 공동체에 미칠 영향과 반응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함.</p>
---	---	---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관악고등학교 (경기)

1.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단, ㉢의 경우 본문을 인용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 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치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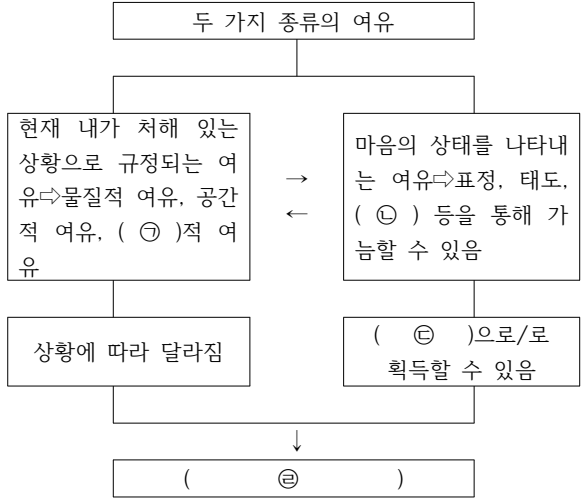
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휴대 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물으려는 마음가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여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은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어 부랴부랴 나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여유를 만드는 일,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이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 가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발 물러섰을 때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

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 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 오은, <이유 있는 여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 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 보고 휴대 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았다.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들이를 가지 않은 아쉬움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하루를 공قت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 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치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능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음은 낮은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났다.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뜻 만나기 꺼려진다.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공짜로 얻은 해외여행 비행기 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유 간의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빡빡한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반가우면서도 그 여유를 어찌 활용할지 막막한 것이다.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함을 느낀다. 반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책 없이 느긋하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될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휴대 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가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여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A)”라는 속담은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어 부랴부랴 나왔다가 지갑을 두고 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여유를 만드는 일,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발 물러섰을 때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 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 오은, <이유 있는 여유>

광문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글쓴이는 친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 여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 대조의 방식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여유가 지닌 차이점을 보여준다.
- ㉤ 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상적인 사건들을 예로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광문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도시의 가까운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나 들
- ㉡ ㉡ :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 ㉢ ㉢ : 모순된 표현을 통해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
- ㉣ ㉣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 ㉤ ㉤ :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

광문고등학교 (서울)

4. 여유에 대한 성격이 다른 하나는?

- ㉠ a
- ㉡ b
- ㉢ c
- ㉣ d
- ㉤ e

광문고등학교 (서울)

5.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속담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 군, 잘 지내는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네.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이러한 오늘날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패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이네.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이제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달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자가 몰려들 것이네.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네만,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즘은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네.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네.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의식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오로지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금'만이 존재하네.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라고 보네. 물론 자네의 조부 세대, 부모 세대는 가난을 이겨 내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네. 그래서 이만큼 먹고살게는 되었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네.

2013년 봄 내가 베를린에서 머물 때 만난 한 독일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네. "우리는 우리 세대가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라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은가? 그들은 ㉤근본을 잊지 않았고 통일도 그런 관점에서 대응했던 것 같네. 그들은 우리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만, 그것을 든든히 떠받쳐주는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돈이 앞선 것이 아니었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그들의 의식 속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의식, 역사 의식이 정말 부럽네.

어렵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대학에서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함께해 왔기에 자네의 아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하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네. 그러나 진심으로 부탁하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 함께 잊지 말고 살아가세.

- 윤영관,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묻은 김 군에게>

광문고등학교 (서울)

6. 밑글을 읽고 모둠 토론을 실시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글쓴이는 '비교'를 통해 통일을 유예하지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군.
- ㉡ 글쓴이는 독자가 공감하도록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군.
- ㉢ 글쓴이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취업 준비생을 예상독자로 하고 있군.
- ㉣ 글쓴이는 요즘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군.
- ㉤ 글쓴이는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평범한 서술 방식보다는 '편지 형식'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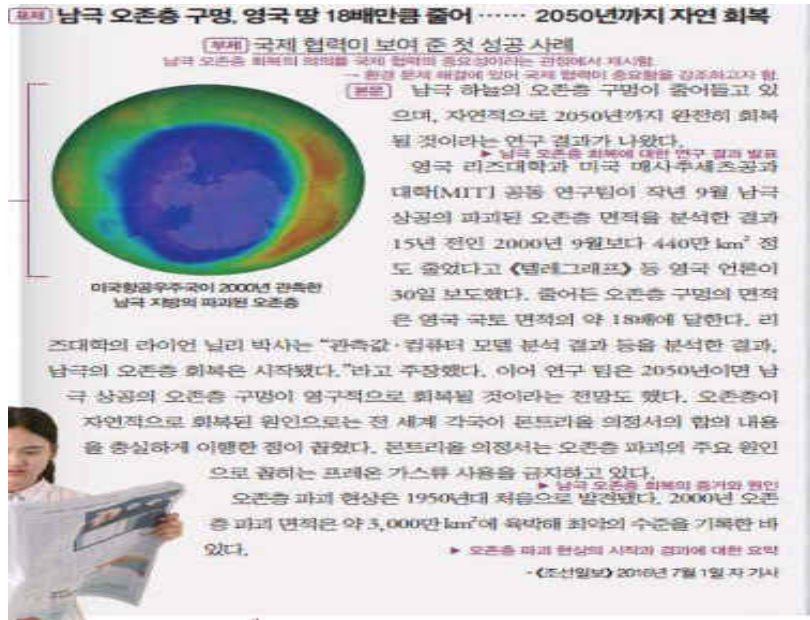
광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계획 따위가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표현 함
- ㉡ ㉡ :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 ㉢ ㉢ : 부족한 것을 채워 메움
- ㉣ ㉣ :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
- ㉤ ㉤ : 역사의식, 공동체 의식

“오존층 회복 전망” 그래픽 신문 모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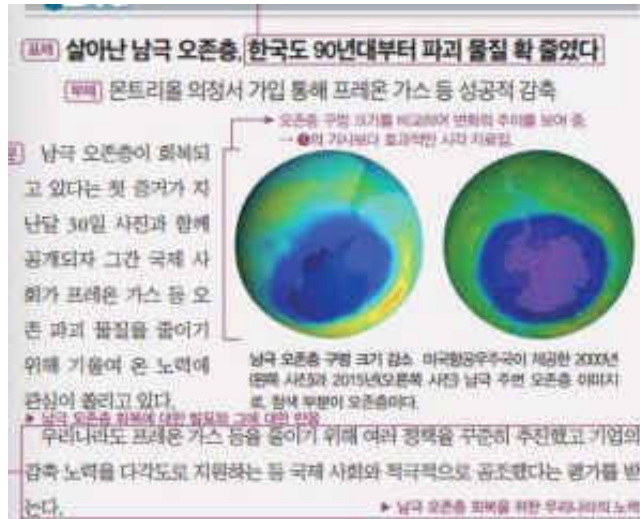
- 이 신문 기사의 주제를 말해 보자.
→ 세계 각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남극 오존층 구멍이 줄었고, 오존층은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 신문 기사의 각 부분을 보며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분석해 보자.

주제	오존층 구멍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국 땅 18배’라고 표현하였다.
부제	‘국제 협력이 보여 준 첫 성공 사례’라고 표현하여 국제 협력의 성과를 부각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 지방의 파괴된 오존층 사진을 제시하여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자연적으로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라고 언급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영국 리즈 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동 연구 팀이 분석한 결과임을 밝혀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즈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 가스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평가해 보자.

관점이나 의도는 무엇인가?	남극 오존층 구멍이 줄었고, 2050년까지 자연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글쓴이가 환경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독자들이 남극 오존층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프레온 가스류의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에 치우쳤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이나 관점, 표현 방법 등이 위의 신문 기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 파괴 물질의 예와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
- 오존층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프레온 가스를 줄이기 위해 ~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서술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을 부각시켰다.
- 사진 자료에서 2000년과 2015년의 남극 주변 오존층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5)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신문 기사는 편집의 과정을 거쳐 신문에 실리게 된다. 따라서 신문 기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사건이 기사화되어 신문에 실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의도나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사화하기 위해 선정한 사건이나 소재, 기사의 제목, 함께 실리는 사진, 문장의 형식과 어조 등에 특정 집단의 주관과 의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6) 다음 광고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자. 소중한 존재인 부모에게 효도하자.

7) 위 광고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제를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이야기해 보자.

표현 방법	적절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이 선배, 여자 친구, 동료에 대해서는 태도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대조하여 보여 준다. • 장면 1~6은 음악을 깔지 않고, 장면 7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을 삽입한다. • 집 밖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1, 3, 5에서는 화면을 밝게,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 2, 4, 6에서는 화면을 어둡게 처리한다. 장면 7에서 화면이 환하게 밝아진다. • 광고 앞부분에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여 주지 않다가 장면 7에서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여준다. 	<p>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와 친절을 갖추다가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이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절하다.</p>

8)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위 광고의 관점이나 의도를 생각해 보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자.

남학생: 이런 광고를 만든 것을 보니 제작자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상대방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 대하다가도 정작 소중한 존재인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는 것을/를 문제라고 여기는 듯해.

여학생 1: 그럼, 이 광고에 담긴 제작자의 관점은 적절한 걸까? 현대인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 아닐까?

여학생 2: 내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편견에 치우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광고에는 현대인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어.

매체 기억 더하기

■ 매체의 개념

넓은 의미의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매체는 불특정 대중에게 많은 정보, 사상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매체의 종류와 특성

인쇄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한 출간물 •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달하며, 일방향적인 성격을 가짐. • 신문, 책, 잡지 등
음성·영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과 영상을 통해 전달함. •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함. •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
디지털 통신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함. • 비교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으며 대량 정보 유통이 가능함. • 인터넷, 휴대 전화 등

■ 광고에 사용되는 매체 언어의 특징

- 대중이 사용하는 살아 있는 언어임.
- 표정, 몸짓, 효과음, 상황, 자막 등이 잘 조화되어 만들어짐.
- 감정에 호소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반복을 중요시하고 설득력이 강함.

■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

고쳐쓰기가 자유로움.	수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편집 기능이 뛰어나.	글을 옮기거나 일부분을 오려 붙이는 등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용이함.
글의 저장과 보관이 용이함.	언제든지 쓰던 글을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서 글을 이어 쓸 수 있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음.	글자의 모양과 색깔, 크기를 조절하기 쉽고, 그림이나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음.

■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


가상 공간은 문자를 근간으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고, 즉각성, 익명성, 파급력 등 가상 공간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용할 때는 정보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정보의 저속성, 지나친 상업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매곡고등학교 (울산)

1. <보기>를 읽고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 18배만큼 줄어
..... 2050년까지 자연 회복
국제 협력이 보여 준 첫 성공 사례



미국항공우주국이 2000년 관측한
남극 지방의 파괴된 오존층


남극 하늘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리즈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동연구팀이 작년 9월 남극 상공의 파괴된 오존층 면적을 분석한 결과 15년 전인 2000년 9월보다 440만km²정도 줄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줄어든 오존층 구멍의 면적은 영국 국토 면적의 약 18배에 달한다. 리즈대학의 라이언 날리 박사는 “관측값·컴퓨터 모델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남극의 오존층 회복은 시작됐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팀은 2050년이면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영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원인으로는 전 세계 각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꼽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프레온 가스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현상은 1950년대 처음으로 발견됐다. 2000년 오존층 파괴 면적은 약 3,000만km²에 육박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 <조선일보> 2016년 7월 1일 자 기사

(나) 살아난 남극 오존층,
한국도 90년대부터 파괴 물질 확 줄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통해 프레온 가스 등 성공적 감축



남극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첫 증거가 지난달 30일 사진과 함께 공개되자 그간 국제 사회가 프레온 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레온 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공영 방송은 지난해 9월 측정한 오존층 구멍이 2000년과 비교해 인도 면적보다 큰 400만 km²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존층 크기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염소 방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가 오존 파괴 물질 사용을 줄인 덕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프레온 가스, 할론, 수소 염화 불화 탄소 등 96종으로 분류된다. 이 물질들은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 건축 단열재, 반도체 세정제, 소방용 소화 약제 등에 널리 사용된다.

세계 각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에 나섰다. 프레온 가스 등의 생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존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2016년 7월 2일 자 기사

- ㉠ 같은 사건을 쓴 기사는 관점이나 표현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없다.
- ㉡ 신문매체는 편집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의도나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 (가)는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한다.
- ㉣ (가)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사진을 제시하고, (나)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 ㉤ (가)는 오존층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노력을, (나)는 국제 협력을 통한 남극의 오존층 회복을 주제로 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 18배만큼 줄어

…2050년까지 자연 회복

⑦국제 협력이 보여 준 첫 성공 사례



미국항공우주국이 2000년 관측한 남극 지방의 파괴된 오존층

남극 하늘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리즈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동 연구팀이 작년 9월 남극 상공의 파괴된 오존층 면적을 분석한 결과 15년 전인 2000년 9월보다 440만km² 정도 줄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줄어든 오존층 구멍의 면적은 영국 국토 면적의 약 18배에 달한다. 리즈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는 “관측값-컴퓨터 모델 분석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남극의 오존층 회복은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팀은 2050년이면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영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원인으로는 전 세계 각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꼽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프레온 가스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현상은 1950년대 처음으로 발견됐다. 2000년 오존 파괴 면적은 약 3,000만km²에 육박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나) 살아난 남극 오존층,

한국도 90년대부터 파괴 물질 확 줄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통해 프레온 가스 등 성공적 감축

남극오존층 구멍 크기 감소

(왼쪽 사진)과 2015년(오른쪽 사진)



미국항공우주국이 제공한 2000년 남극 주변 오존층 이미지로, 청색 부분이 오존층이다.

남극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첫 증거가 지난달 30일 사진과 함께 공개되자 그간 국제 사회가 프레온 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레온 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고 기업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국영 방송은 지난해 9월 측정한 오존층 구멍이 2000년과 비교해 인도 면적보다 큰 400만km²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존층 크기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염소 방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가 오존 파괴 물질 사용을 줄인 덕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프레온 가스, 할론, 수소 염화 불화 탄소 등 96종으로 분류된다. 이 물질들은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 건축 단열재, 반도체 세정제, 소방용 소화약제 등에 널리 사용된다.

세계 각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에 나섰다. 프레온 가스 등의 생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존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등촌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와 달리 (나)는 신문 매체의 특성을 살려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 (가)와 (나)에는 모두 남극의 오존층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 ㉢ (나)보다는 (가)에서 남극 오존층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와 달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다양한 예와 그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 ㉤ (가)는 오존층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오존층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등촌고등학교 (서울)

3. (가), (나)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신문사의 편집 방향, 기사 배열 방식, 어휘 선택 등을 파악하지 않아도 기사 행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 나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글을 선별하여 읽어야 한다.

- ㉓ 편집자의 가치 판단이 드러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글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며 읽어야 한다.
- ㉔ 특정 집단의 주관과 의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㉕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삶의 현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등촌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보기>


신문 기사는 ()을 거친다. ()이란 삶의 현실이 신문에 실리기까지 거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비록 하루치의 것일망정 그 엄청나게 방대하고 풍부한 현실 세계를 겨우 몇 쪽의 지면에 다 담을 수 없음을 명백한 일이다. 그래서 삶의 현실과 신문 지면 사이에 불가피하게 놓이게 한 여과 장치가 바로 ()인 셈이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은 이러한 ()이란 과정을 통해 길러진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취사선택의 과정이 기도 한 ()에는 따라서 가치 판단이 스며 있게 된다.

※ 다음 기사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땅 18배만큼 줄어...2050년까지 자연 회복

국제 협력이 보여 준 첫 성공 사례



미국항공우주국이 300년 관측된 남극 지방의 위대한 오존층

남극 하늘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리즈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동 연구팀이 작년 9월 남극 상공의 파괴된 오존층 면적을 분석한 결과 15년 전인 2000년 9월보다 440만km² 정도 줄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줄어든 오존층 구멍의 면적은 영국 국토 면적의 약 18배에 달한다. 리즈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는 “관측값·컴퓨터 모델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극의 오존층 회복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팀은 2050년이면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영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원인으로는 전 세계 각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꼽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프레온 가스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현상은 1950년대 처음으로 발견됐다. 2000년 오존 파괴 면적은 약 3,000만km²에 육박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 <조선일보> 2016년 7월 1일자 기사

등촌고등학교 (서울)

5. 이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오존층 파괴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 ㉒ ‘영국 땅 18배’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㉓ 리즈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㉔ 파괴된 오존층 사진을 통해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 ㉕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등촌고등학교 (서울)

6. 부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기사문의 의도를 쓰시오.

“음운 변동” 탐방 지식 더하기

㉑ 음운의 변동

- ① 개념: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 ②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남.

㉒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
말막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 →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 + ● → ■ + ▲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음운이 바뀌지 않는 부분: ■, ● / 음운이 바뀌는 부분: ■, ●, ▲

㉓ 음운 변동의 예시

■ 교체

종류	내용
비음화, 유음화	<p>①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ㄴ, ㄹ,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ㄴ, ㄹ, ㅇ]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물[궁물]</p> <p>(2)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능력[능녁], 남루[남:누]</p> <p>(3)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바뀐 비음을 닮아서 앞의 ‘ㄱ, ㄷ, ㅂ’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백로[뱅노], 몇 리[면니]</p> <p>② 유음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됨. 설날[설:랄], 신라[실라]</p>
구개음화	<p>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예) 만이[마지], 굳이[구지]</p>
원소리되기 (경음화)	<p>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가[국까]</p> <p>(2)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신지[신:찌]</p> <p>(3)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물질[물찹]</p>

■ 첨가

종류	내용
반모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ㅚ’가 덧붙는 현상 •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ㅚ’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도 허용됨. <p>예) 피- + -어 → 피어[피어/피여]</p>

■ 축약

종류	내용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ㅎ’이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예) 농고[노코], 축하[추카]

■ 탈락

종류	내용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있던 모음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1) ‘ㅡ’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 예) 잠그- + -아 → 잠가 (2) 동음 탈락: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중 하나가 탈락함. 가 + -아라 → 가라
두음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음의 경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ㄴ’이 탈락함. 예) 여자(女子) (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ㄹ’이 탈락함. 양심(良心) (3)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교체됨. 내일(來日)

“음운 변동” 드러낸 문장 모음

1)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

단어		음운의 변동
국인	[]	ㄱ + ㅁ → ㅇ + ㅁ
받는다	[받는다]	ㄷ + ㄴ → ㄴ + ㄴ
밤물	[밤물]	ㅂ + ㅁ → ㅁ + ㅁ
종로	[종노]	ㅇ + ㄹ → ㅇ + ㄴ
설리	[설니 → 섬니]	ㅂ + ㄹ → ㅂ + ㄴ → ㅁ + ㄴ

2) 학생이 쓴 글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정확한 발음을 적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왕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국문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알려 주세요.

왕릉[왕능], 학년[학년], 국문학[궁문학], 생겼는데[생겼는데 → 생견는데]

3)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놀이	[놀리]	ㄴ + ㄹ → ㄹ + ㄹ
신라	[실라]	ㄴ + ㄹ → ㄹ + ㄹ
권력	[꺄력]	ㄴ + ㄹ → ㄹ + ㄹ
설날	[설랄]	ㄹ + ㄴ → ㄹ + ㄹ
칼날	[칼랄]	ㄹ + ㄴ → ㄹ + ㄹ

4) 다음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지명이나 명소를 찾아보자

선릉, 대관령, 독도, 만리포, 속리산 천령산, 광한루, 한라산

선릉[설릉], 대관령[대괭령], 만리포[말리포], 천령산[철령산],
광한루[광할루], 한라산[할라산]

5)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

단어		음운의 변동
학교	[]	ㄱ → ㄱ
국밥	[국뽕]	ㅂ → ㅃ
밥상	[밥쌩]	ㅅ → ㅆ
감다	[감따]	ㄷ → ㅌ
안고	[안꼬]	ㄱ → ㄱ
발편	[발뽕]	ㅈ → ㅉ

6) 다음 일기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보자.

2000년 00월 00일 맑음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서점에 갔다. 지하철을 잘못 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해 책을 보는데, 뛰어서 그런지 갈증이 나고 발도 아파 잠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이가 살 책을 결정한 뒤에 밥을 먹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꼭 참고 책을 골랐다. 책을 산 뒤, 지은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신고[신꼬], 갔대[갔다] → 갔따, 늦게[늦게] → 늦께, 갈증[갈증], 싶었다[시편다] → 시뽕따
결정[결뽕], 좋겠다고[조켄다고] → 조켄따고, 참고[참꼬], 골랐다[골랏다] → 골랏따
식당[식뽕], 국수[국쑤], 맛있었다[마시썰다] → 마시썰따 [마디썰다 → 마디썰따]

7)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해돋이	[해도지]	ㄷ + → ㅌ +
같이	[구지]	
미닫이	[미다지]	
꿩이	[끄치]	ㅌ + → ㅊ +
붙이다	[부치다]	
같이	[가치]	

8) 다음 뉴스 원고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보자.

이번 주 내내 하늘을 뒤덮었던 비구름이 물러나고 별이 좋아 모처럼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이 줄을 이었고, 들에선 가을걷이 하는 농부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별이[벼치], 가을걷이[가을거지]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p>•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p>				
전개	<p>(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p>(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p> <p>(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p>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리	<p>•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p>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뉘뻘].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겉력짜]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 '배춧잎[배춘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줄넘기[줄럼끼]'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국화꽃[구과꽂]'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닭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 '편입학[피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 광한루 ㉡ 흙만 ㉢ 대관령 ㉣ 달나라 ㉤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ㅈ, ㅉ, ㅊ, ㅊ, ㅊ, ㅊ)'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ㄹ(ㄹx)'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각두기 | 닭다 | 전등(前燈) | 밝다 |
|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함다 |
|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움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에는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 탐방 지식 이해하기

①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제정 이유

- ① 개념: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
- ② 제정 이유: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함.

■ 한글 맞춤법의 종류와 내용

총칙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규정
자모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순서
단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에 관한 것(단어의 발음법에 관한 규정) • 형태에 관한 것(단어의 표기법에 관한 규정)
띄어쓰기와 그 밖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경우에 대한 띄어쓰기의 원칙 • 한자어, 접미사 등 헛갈리기 쉬운 말들의 표기

② 제제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예시적
제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주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함. ②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대신에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1항)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표기 대상: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
- ② 원칙

소리대로 적음.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 • 표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 • 표의주의, 형태주의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2항)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기본 원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씀.
 - ↳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② 예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 ↳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씀.

㉔ 한글 맞춤법의 일부 조항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p>용언의 어간 + 접미사 (제19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간 + ‘-이’나 ‘-음/-으’ → 명사 예) 길이, 깊이, 걸음, 묶음 어간 + ‘-이’나 ‘-히’ → 부사 같이, 많이, 악히, 밝히 어간 +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말 → 소리대로 적음. 귀머거리, 너무 <p style="text-align: right;">→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음.</p>
<p>명사 + 접미사 (제20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 ‘-이’ →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음. 예) 곳곳이, 날날이 명사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 소리대로 적음. 모가치, 꼬락서니

■ 띄어쓰기 관련 조항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그라신 문제 모음

1) ‘나물좀다오.’의 2가지 뜻을 적어 보자.

나 물 좀 다오.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의미) / 나물 좀 다오. (나물을 달라는 의미)

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건의문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 골목길을 지나야
 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은 가로등이 적어서 밤이 되면 몹시 어둡습니다. 그
 곳을 지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꺼라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저는 ○○ 골목길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잘못된 표기	표기
끈나고	
몹씨	몹시
꺼라고	거라고

3) 띄어 써야 할 곳에 V로 표시해 보자.

열무삼십단을이고
 시장에간우리엄마
 안오시네, 해는시든지오래
 나는찬밥처럼방에담겨
 아무리천천히숙제를해도
 엄마안오시네, 배추잎같은발소리타박타박

5-(1) 한글 맞춤법 [이론편]

열무▽삼십▽단을▽이고
 시장에▽간▽우리▽엄마
 안▽오시네, 해는▽시든▽지▽오래
 나는▽찬밥처럼▽방에▽담겨
 아무리▽천천히▽속제를▽해도
 엄마▽안▽오시네, 배추▽잎▽같은▽발소리▽타박타박

4) 제시된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찾으시오.

합격을-합격률, 살살치-살살이, 헤택-혜택

합격률, 살살이, 혜택

5)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보자.

- ① 사과는 (깨끗이/깨끗히)씻어 껍질째 먹는 게 좋다.
- ② 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맛있든지) 한 그릇을 다 비웠다.
- ③ 목이 아프다고 하자 엄마가 생강차를 (달여/다려) 주셨다.
- ④ 채소를 체에 (받혀/받쳐)물기를 뺐다.
- ⑤ 재료는 (반드시/반듯이)썰어야 보기에 좋다.
- ⑥ 엄마를 도와 맛있는 전을 (부쳤다/붙였다).
- ⑦ 잘 씻은 감자를 솥에 (안쳤다/얹혔다).
- ⑧ (어름/얼음)이 가득 든 컵에 물을 따랐다.
- ⑨ 계란 (졸임/조림)이 너무 짜다.

① 깨끗이 ② 맛있던지 ③ 달여 ④ 받쳐 ⑤ 반듯이 ⑥ 부쳤다 ⑦ 안쳤다 ⑧ 얼음 ⑨ 조림

6) '양복을 맞추다' 와 '양복을 마추다' 가운데 어느 표현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 제55항에서 '주문하다'란 뜻의 단어는 '마추다'로, '맞게 하다'란 뜻의 단어는 '맞추다'로 구별하여 적던 말을 '맞추다' 한 가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복을 맞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7) '가든지 오든지'라고 써야 하는지 '가던지 오던지'로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떤 표현이 맞나요?

→ <한글 맞춤법> 규정 제6장 제56항에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든지 오든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8)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답해 보자.

질문: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름은 '오투기'와 '오투이' 중 무엇이 맞는 표현인가요?

답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23항에서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ㄱ	ㄴ
깔죽이	깔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씩씩이	씩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투이	오투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홀죽이	홀쭈기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 칼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결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겁니다.

- ㉠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 ㉣ : 난 뭔가 진실한 결 안 것 같습니다.
- ㉤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윤아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윤아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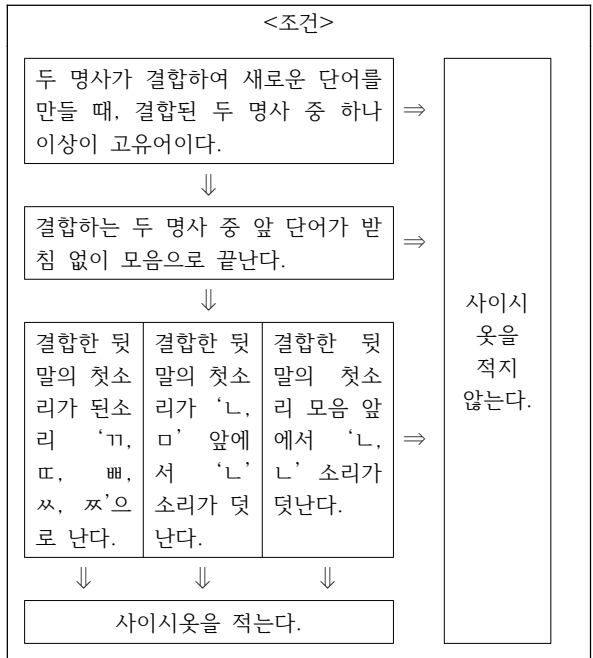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 강철
- ㉡ 어준
- ㉢ 아영
- ㉣ 순이
- ㉤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되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돼’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헛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 3.
-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넛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싹싹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촛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률(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겨(X), 놓아(○)/노코(X)

1.③ 2.③ 3.④ 4.학문적 성취 5.아쉬움(그리움) 6.① 7.⑤ 8.② 9.③ 10.② 11.② 12.④ 13.㉠ 둔한 사람 ㉡ 큰 학문적인 성취 14.① 15.④ 16.⑤ 17.② 18.① 19.③ 20.⑤ 21.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22.② 23.② 24.④ 25.⑤ 26.③ 27.② 28.① 29.① 30.④ 31.④ 32.② 33.⑤ 34.④ 35.④ 36.② 37.⑤ 38.① 39.④ 40.독도 주변 바다와 같은 분지 모양 지형을 의미한다.

2-(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1.④ 2.⑤ 3.④ 4.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5.④ 6.② 7.⑤ 8.⑤ 9.④ 10.⑤ 11.① 12.⑤ 13.② 14.④ 15.① 16.나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실현 가능성, 직업, 안정성)을 고려해 진로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은 후에는 (꿈에 몰두할 수 있는지, 그 꿈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고려해서 내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7.선택한 읽기 방법: 발췌 읽기, 속독, 통독 / 선택한 이유: 보고서를 쓰기위한 정보 습득이 목적이므로, 글 전체를 대강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빠르게 읽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① 19.①

3-(1) 글쓰기를 잘하려면

1.② 2.④ 3.⑤ 4.① 5.④ 6.③ 7.② 8. (가): 인쇄 매체에 동영상 자료는 적절치 않음. (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9.② 10.⑤ 11.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2.④ 13.① 14.⑤ 15.핵심 주장-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다. 세부 주장1-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사진이나 개인 기록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개인 정보가 흘러 나가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세부주장2-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근거-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세부 주장3-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근거-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③ 17.④ 18.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19.④ 20.⑤ 21.⑤ 22.④ 23.㉠-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24.④ 25.⑤ 26.⑤ 27.④ 28.③ 29.⑤ 30.⑤ 31.(가)목적: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겠어, (다)의 갈래: 설명문이다. 32.중간 1-2: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넣어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을 넣는다. 중간 2-3: 예상 독자의 수준에 알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33.③

3-(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1.⑤ 2.④ 3.⑤ 4.㉠입론 ㉡논제 ㉢반대신문 5.⑤ 6.① 7.① 8.③ 9.④ 10.① 11.④ 12.(2) 의문형 문장 대신 긍정형 서술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 논제는 하나의 과제를 담아야 하는데, 두 개의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3.⑤ 14.③ 15.⑤ 16.② 17.③ 18.④ 19.② 20.② 21.③ 22.④ 23.③ 24.③ 25.② 26.논제를 제시한다. 토론 방식을 안내한다. 토론 시 유의할 점을 제시한다. 27.② 28.④ 29.③ 30.(1) 청소년은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2)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1) 이유 있는 여유

1.㉠: 시간적 ㉡: 행동 ㉢: 훈련 ㉣: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가 중요함 2.① 3.③ 4.③ 5.급할수록 돌아가라 6.⑤ 7.① 8.⑤ 9.④ 10.<보기1>의 화자는 '실시하면 일년 생애 허사인가와 같이 때를 놓치면 일년이 헛되게 된다고 말하며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윗글의 작가는 여유가 나를 위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유를 만드는 일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며,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이며,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이며,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1.④ 12.④ 13.⑤ 14.자발적으로 여유를 만들자 15.⑤ 16.④ 17.③ 18.① 19.② 20.⑤ 21.① 22.③ 23.① 24.④ 25.② 26.물질 만능주의 27.③ 28.③ 29.① 30.①

4-(2) 매체로 보는 세상

1.② 2.⑤ 3.④ 4.편집 5.① 6.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7. ② 8.⑤ 9.② 10.⑤ 11.㉠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 즉각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12.③ 13.국제 협력이 보여 준 첫 성공 사례 14.③ 15.⑤ 16.③ 17.⑤ 18.(1) 남극 오존층의 회복을 한국의 노력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2) 오존층 구멍 크기를 비교하여 변화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5-(1) 음운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몽],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깬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 ③ 22.② 23.④ 24.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ㅁ'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 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 ③

5-(1) 한글 맞춤법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롤→회전롤, 촛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백분율, 댓가→대가, 빼어야→빼야(빼어야) 13.② 14. 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롤→선율, 몹씨→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ㅍ만큼ㅍ좋은ㅍ결과를ㅍ얻기를ㅍ바랐지만ㅍ일등은커녕ㅍ꿀찌를ㅍ했다 38.1) 머거→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똥그려:㉠, 씹슬한→씹쓸한:㉡ 47.④ 48. 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ㅍ시작한ㅍ지ㅍ이틀째인데ㅍ겨우ㅍ열ㅍ개를ㅍ할ㅍ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ㄷ. 뵈요→뵈요 ㄹ: 순대국→순댓국 65.②

- 끝 -

충만 충만 **국어**
www.chongmangug.co.kr
오류 체크
연계 작품 정리
암기 테스트 자료
시험 대비 자료

1-(1) 슬픔이 기쁨에게

1.④

▶'슬픔'이 '기쁨'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막연하게 출선수범하는 모습을 요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겠다'가 의지적 어조에 해당. ②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가 역설적 표현으로 슬픔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놓음. ③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화자(슬픔)가 청자(기쁨)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할 건네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음. ⑤ '기쁨'을 긍정적으로 '슬픔'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슬픔'을 긍정적으로 '기쁨'을 부정적으로 보는 작가의 인식과 함축성이 나타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3.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2.④

▶<슬픔이 기쁨에게>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화자(슬픔)가 청자(기쁨)에게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요구)하는 관계인데, 이처럼 ④도 화자가 청자(당신)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에서는 청자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주제 저장소◆

- ① <파발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향한 의지'
- ② <바다와 나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 ③ <인동차>: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삶의 자세'
- ④ <사랑의 측량>: '당신과 멀어질수록 커지는 사랑'
- ⑤ <오렌지>: '존재의본질과 진정한 의미 추구'

▶왔다, 1등급 조언!◀

시험에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없는 작품이 나오면 누구나 당황한다. 이것은 예고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

다. 일단 침착하고~발문(물어보는 말, 문두)을 다시 집중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물어 본 것인데 모든 시에는 당연히 화자는 있는 것이고 청자가 있는 지의 여부만을 먼저 따져 본다면 ④가 유일하다. 그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된다. 나머지는 청자가 없는 독백의 작품일 뿐이다.

외부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기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집에서 외부 작품을 만난다면 주제 저장소 정도로만 간단히 해두자. 주제만 대략 알아도 작품의 70%이상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만이라도 아는 것과 주제조차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심하자.

3.②

▶은유법 찾기로 <A는 B이다>형태. 사람(A)은 뜨거운 연탄(B)이다.

- ①, ③ 직유법 ④ 설의법 ⑤ 대구법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4.③

▶'갔다' 반복가 반복되고 시에서 반복은 곧 운율을 형성한다.

- ①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화 한 것임. ② 설의적 표현은 없음. ④ 대화가 아니라, '나'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말함. ⑤ 원근의 변화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